www.GungPlant.co.kr
시원하게! 편안하게! 부드럽게! 진료하는
궁플란트치과의원
TEL. 02-722-2870 조계사 앞 사거리, 1호선 종각역 2번 출구 앞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420-증-1905호

佛教新聞

i bulgyo.com

불기 2555년 6월 18일 (2011년 / 단기 4344년 음력 5월17일)

1960년 1월 1일 창간 주2회 발행

대표전화 (02)730-4488 제2728호 토

성지순례 해외여행 맞춤여행 명산트레킹 항공권
또 다른 당신을 만나는 최적의 여행사
(주)마야투어 조승환 합장
www.mayatour.co.kr 02-722-9001 010-8443-9001

“전통문화 보존에 앞장”

총무원장 자승스님, 이명박 대통령에 당부
사회갈등 예방 ‘증오범죄법’ 제정도 제안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종교간 화합을 위해 ‘증오범죄법’ 제정과 함께 템플스테이와 처치스테이 등 각 종교문화 체험프로그램의 직접 참가를 제안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의장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 등 7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난 13일 청와대를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과 오찬을 갖고 국민통합을 위한 종교의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의장으로서 인종과 문화, 종교 등 제 분야에서의 차별이나 혐오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막자는 취지의 ‘증오범죄법’ 제정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종교지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미국에서는 인종과 문화, 종교 등에 대한 갈등과 차별을 막기 위한 ‘증오범죄법’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접한 뒤 ‘증오범죄법’의 국내도입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주도해 정부에 ‘증오범죄법’을 제정해 달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명의로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정부가 근대유산을 포함한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보존 및 발전하는데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기동안 템플스테이와 처치스테이, 향교스테이 등 각 종교별 문화체험프로그램 참여를 제안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만나 국민통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제공=청와대

이와 함께 종교지도자들과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오찬을 통해 국민통합을 위한 종교의 역할과 종교간 화합과 상생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발전을 위한 종교지도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종교계가 국민의 뜻을 모아 사회통합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어 “종교간 상생과 화합을 위해서는 내 종교가 소중한 만큼 다른 종교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이러한 성숙한 태도가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의 밑거름이 된다”고 당부했다. 이에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대통령의 공정사회 구현과 서민을 위한 정책이 임기내에 반드시 성과를 내고 성공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 오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해 김운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무, 김희중 천주교 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위원장, 김주원 원불교 교정원장, 최근덕 성균관장, 임운길 천도교 교령, 한양원 민족종교협의회장 등 7대 종교 지도자가 참석했다. 또한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임태희 대통령실장, 박인주 사회통합수석, 김두우 홍보수석 등이 배석했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해인총림 해인사는 지난 14일 경내 대적광전 앞마당에서 ‘민족문화수호 및 자성과 쇄신 결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서 해인사 사부대중의 ‘5대 결사 8대강령 결의문’을 법전 종정예하께 봉정하며 5대 결사의 쉼없는 정진을 약속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해인사 ‘민족문화수호 결의대회’ 개최

“국민운동 승화되도록 정진하자”

법전 종정예하, ‘종도들 적극 동참’ 당부

해인총림 해인사가 민족문화를 수호하고 자성과 쇄신 결사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법석을 열었다. 해인사(주지 선각스님)는 지난 14일 경내 대적광전 앞마당에서 ‘민족문화수호 및 자성과 쇄신 결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해인사는 타 교구본사보다 민족문화수호 결의대회가 늦었지만 지난 1일 ‘민족문화 수호 및 자성과 쇄신을 위한 5대 결사 토론회’를 개최해 ‘8대 강령결의문’을 채택하고 세부적인 실천방안도 수립한데 이어 이날 결의대회를 열어 여느 교구보다 5대 결사 실천에 모범을 보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결의문 낭독을 통해 해인사 사부대중은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켜 5대 결사를 모범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을 부처님 앞에 서원했다. 또한 해인사 주지 선각스님이 해인사 사부대중의 5대 결사 동참의지를 담은 ‘5대 결사 8대강령 결의문’을 법전 종정예하에 봉정하며 5대 결사의 쉼없는 정진을 약속했다.

해인사 주지 선각스님은 대회사에서 “부처님 계율대로, 부처님 법대로 살아가는 자성적 자각이야말로 5대 결사를 힘있게 실천해 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면서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과 해인아트프로젝트를 5대 결사 가운데 ‘문화결사’ 실천의 최우선 과제로 반드시 성공시키는 등 5대 결사 실천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한국불교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한 자성과 쇄신 결사를 사부대중에게 제안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격려사에서 “자성과 쇄신 결사 선언은 작금의 한국불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지만 단번에 이룰 수도, 이뤄질 수도 없다”면서 “본말사의 실정에 맞게 점진적으로 실천하고 이뤄가야 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법전 종정예하는 자성과 쇄신 결사를 새로운 정신문화운동으로 승화할 것을 종도들에게 당부했다. 종정예하는 법어를 통해 “자성과 쇄신을 위한 5대 결사로 인해 우리의 전통문화와 사상이 온전히 보전 계승될 것이며 다양한 문화와 생활방식이 인드라망 세계의 조화로움 속에서 더욱 빛날 것”이라며 “모든 종도는 불퇴전의 자세로 여일정진(如一精進) 토록 하자”고 설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12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해인사=박인탁 기자

‘전사법’ 연내 전면개정 추진

조계종 기획실, 전통사찰 중복규제 조항 정비

불교 자존을 가로막는 법률적 걸림돌인 전통사찰보존법(전사법)의 연내 전면 개정이 추진된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은 지난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관련기사 3면

개정안의 골간은 전통사찰이 단순히 불교만의 자산이 아니라 전 국민이 지키고 향유해야 할 ‘문화유산’으로 의미를 부각시킨 점이다. 특히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온 ‘중복규제’를 뿌리 뽑기 위한 일괄적용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전사법을 특별법으로 두어, 건축법이나 개발제한구역법 등 기타 법령의 ‘간섭’을 배제하고 오직 전사법으로 통합 운용하겠다는 목표다.

브리핑을 진행한 김영일 기획차장은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부처 모두 개정의 당위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으며 몇몇 쟁점사안에서만 입장이 부딪히는 상태”라며 “꾸준한 설득과 협의로 이견을 해소한 후 여야 공동발의를 통해 오는 9월 국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군악대 ‘현충일 추념식 찬송가’

“영결식 때마다 지속적 연주”

국방부 본지에 회신

최근 현충일 추모행사에서 찬송가를 반복적으로 연주한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이번 사안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본지가 국방부에 보낸 질의서의 답변이 미흡해 빈축을 사고 있다.

현충일 추념식에서 찬송가를 연주했다는 사실이 종교편향 문제로 떠오르자, 국방부는 지난 7일 “현충일 추념식이 아닌 추념식 전에 실시한 ‘호국의 형제 안장식’ 때 사용한 연주”라고 해명했다. 이어 “호국의 형제 안장식 때 사용한 총 5곡 가운데 ‘자유의 새’라는 곡의 일부분이 찬송가로 활용되어 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8일 호국의 형제 안장식의 주최와 시행배경, 5곡을 선정한 이유와 찬송가를 활용한 까닭 등을 골자로 질의서를 보냈다. 하지만 10일 오후 메일을 통해 돌아온 답신에는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호국의 형제 안장식 때 사용한 5곡의 선정 이유에 대해서 명백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총 5곡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찬송가 부분이 나오는 ‘Free as Bird’는 3도막 형식의 장송행진곡으로 첫 부분은 스페인 민요로 우리나라에서는 ‘고향생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곡”이라며 “‘내 주를 가까이 함은’이라는 찬송가로 활용되어 지고 있다”고 밝혔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2면에 계속

천종사 “원효대사 동상 보수하겠다” 5면
사진으로 보는 ‘북한의 전통사찰’ 13면

선재 스님의 약보다 좋은
사찰음식 이야기

선재 스님의
이야기로 버무린
사찰음식

선재 스님 지음 • 256면
올컬러 • 17,000원

선재 스님의
이야기로 버무린
사찰음식

선재 스님이
추천하는
여름레시피

염증과 변비에 좋은 가지찜
세로토닌을 활성화시키고 변비 예방에 좋은 우엉두부김밥
우리 아이 두뇌 계발에 좋은 호박씨시금치무침
비만, 당뇨, 암환자에게 좋은 단호박된장국수
기운을 북돋워주는 애호박편수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예방해 주는 표고버섯냉면

사찰음식의 대가 선재 스님이 11년 만에 출간한 새 책 !

언론이 집중 조명한 사찰음식 붐!

KBS「생로병사의 비밀」(7월 9일 방영 예정)
MBC「시사매거진 2580」 KBS「한국인의 밥상」
KBS「즐거운 책 읽기」

불광출판사 Tel. (02) 420-3200 Fax. (02) 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 www.facebook.com / bulkwang